



2022 서울문화재단
장애예술인 창작활성화 지원사업
발달장애예술 비평 개념 연구

표지 디자인

본문의 내용 중에 "아르튀르-조잡한, 가공되지 않은" 에서 일차적으로 영감을 얻었으며, 본 연구가 발달장애 예술과 비평이라는 단어 사이에 포석을 놓는 작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작품을 볼 때 관람자는 각자의 시선을 가지고 본다고 할 수 있는데, 장애/비장애 예술의 경계는 그 시선의 각도에서 결정지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박태현 작가 작품을 차용하여 이미지를 몇 가지 색으로 나누고, 그 색들을 일정한 각도로 배치하는 방식으로 표현했습니다._곽동경 (사진작가)

- 목차 -

I. 연구 목표와 개요	4
1. 연구 목표	5
2. 연구 배경	6
3. 연구 개요	7
4. 연구 질문	9
II. 연구 과정	10
1. 실행 절차 및 과정	11
2. 연구 범위	12
3. 실행 방법	22
III. 분석 방법 및 결과	28
1. 분석 개요	29
2. 국내 분석	32
3. 해외 분석	36
IV. 연구 결과	42
V. 제언	46

I. 연구 목표와 개요

1. 연구 목표

이 글을 계속 고쳐 쓰고 있다. 누구를 위해 이 연구를 수행했는가를 거듭 자문했다. 이 글을 무엇이라 부를 것인가. 결과보고서인가, 소논문인가, 그런데 그 이름이 중요한가. 이름은 형식을 담보하는데, 형식 즉 스타일을 엄정하게 정할 수 있는 연구를 수행했는가. 우리는 발달장애미술에 비평 개념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지대에 서 있었는가. 질문이 꼬리를 잇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이 마지막 질문에 대해서는 답할 수 있을 것 같다. 확신이 없어서다. 회의가 짙어서다. 더불어 발달장애미술 비평 개념 연구란 포부는 컸지만 이 연구는 그 출발점 위에 서 있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몸풀기에 그쳤다는 생각도 든다. 연구 목표에 대한 소기의 성과는 있으나 너른 지대가 있는지 확인 절차를 거치기 어려웠고 수합 가능한 영토에서 소작(小作)에 가까운 더부살이를 한 건 아닌가 덜컥 겁나기도 하다.

발달장애미술에 어떤 비전을 전하고 싶었는데 실패한 것 같다는 암울함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초의 고민에 솔직해야 하고, 그 과정에 책임져야 한다. 자축보다 난항을 순순히 밝히는 게 향후 우리를 위해, 또 이 연구에 관심있는 누군가를 위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소회를 털어놓으며 글을 시작하겠다.

우선 우리는 왜 이 연구에 착수했는가.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몇 해에 걸쳐 장애미술, 그중에서도 특히 발달장애예술가와 만나 전시를 꾸리고 글을 쓰며, 워크숍을 기획해 왔다.¹⁾ 그 과정에서 발달장애미술에 대한 비평 개념에 있어서 적합한 어휘의 빈곤을 처절하게 느껴왔다. 우리는 발달장애미술계가 청각, 시각, 신체 부자유의 장애가 있는 장애미술과는 분명 또 다른 비평의 지대에 놓여 있다는, 중간 지대에서의 가정을 세우게 되었다. 물론 이 전제 자체에 대해 조심스럽기도 하고 더 넓게는 장애예술 전반의 비평 개념 또한 부재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익히 통감한다.

그러나 연구의 범위 설정을 장애예술 일반이 아니라 발달장애미술로 한정하는 이유는 본 연구의 구체성을 확보하려는 최소한의 지대 설정이자, 발달장애미술의 특수성을 비평적 지대에서 타진해 보려는 책임 설정과 맞물린다. 하여 확보가능한 발달장애미술

1) 박미연은 2017년부터 자폐화가 이장우의 전시를 기획해 왔으며, 2021년, 2022년 스페셜아트와의 협업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김현주는 발달장애미술기관 스페셜아트 작가들을 위한 글과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서울문화재단 잠실창작스튜디오 작가와 전시 관련 글을 기고하며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장애미술과 관련한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전주연은 2021년 예술로기획사업을 통해 스페셜아트 소속 예술가와의 협업을 진행하고 그 결과물을 스페셜아트 결과보고전인 《울림》에 전시했다.

관련 텍스트를 수합하여 코퍼스 분석을 시도하고 이 분석 조사를 기반으로 발달장애미술에 대한 비평 개념을 반성적으로 진단해 보려고 한다. 물론 우리는 안다. 출발선에서 조금 걸어 나왔다는 것을.

2. 연구 배경

연구 제안에서 구체적인 의문은 “아직도, 여전히 발달장애 비평 개념으로 아르 브뤼(art brut), 아웃사이드 아트(outsider art)를 고수할 것인가?”라는 문제 의식이었다. 1948년 아르 브뤼(브뤼는 ‘조잡한’ 또는 ‘가공되지 않은’의 의미로 ‘세련된’ ‘문화적’인 것의 반대) 협회를 만들고 첫 전시를 개최한 장 뒤뷔페(Jean Dubuffet)는 「문화 예술 보다 나은 아르 브뤼」에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우리는 이 용어를 통해 예술 문화에 상처받지 않은 이들이 만든 작품을 이해할 수 있다. 그 작품에서 흥내 내기는(지식인 활동과는 반대로) 거의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다. 이 미술가들에게 주제, 재료 선택, 전환의 수단, 리듬, 글쓰기 방식 등, 모든 것은 그들 깊숙한 곳에서 나오는 것이지 미술에 대한 고전적이거나 유행하고 있는 생각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절대적으로 순수한 미적 작용의 목격자이다. 이 미적 작용은 모든 국면에서 오로지 미술가의 충동에 의해 가공되지 않고 원시적(brut)이 되며 완전히 재발견된다.²⁾

뒤뷔페의 아르 브뤼는 앞서 있던 그 무엇과의 절연을 공표하고 있다. 흥내 내지 않고 나온 미적 작용에 대한 여러 읽기 방식을 짚고 있지만, 발달장애미술에 대해 아르 브뤼를 아직도, 여전히 언급하는 오늘의 양상은 어떠한가. 이 미술 깊숙이로부터 나오는 주제, 재료 선택, 전환의 수단, 리듬, 글쓰기 방식에 대해 찾고 묻고 있는가. 미술사적 아르 브뤼는 명맥을 이어오고 있지만 발달장애미술에서 아르 브뤼는 묘연하게만 느껴진다.

한편 뒤뷔페보다 앞서 1922년 『정신병자들의 조형작업』을 발표하여 뒤뷔페에게 큰 영향을 준 미술사가이자 정신의학자 한스 프린츠혼(Hans Prinzhorn)은 형상화 충동이라는 개념을 통해 당대에 ‘비정상’으로 분류, 배제된 이들의 조형에 대해 설명하였다.³⁾ 형상화 충동은 모든 형상화 활동의 내적 동기로 설정되어서 표현욕구, 유희충동, 꾸밈충동, 모사경향, 질서화 경향, 상징욕구라는 여섯 가지 내재적 충동들의 관계에 따라

2) 할 포스터, 로잘린드 크라우스 외, 『1900년 이후의 미술사』, 배수희, 신정훈 외 옮김, 세미콜론, 2012, p. 371.

3) 그림 1은 김남시, 「한스 프린츠혼 『정신병자들의 조형작업』의 미학적 의의」, 『미학』 제70집, 2012년 3월, p. 1에서 재인용함.

다양한 종류의 형상화를 분석하는 이론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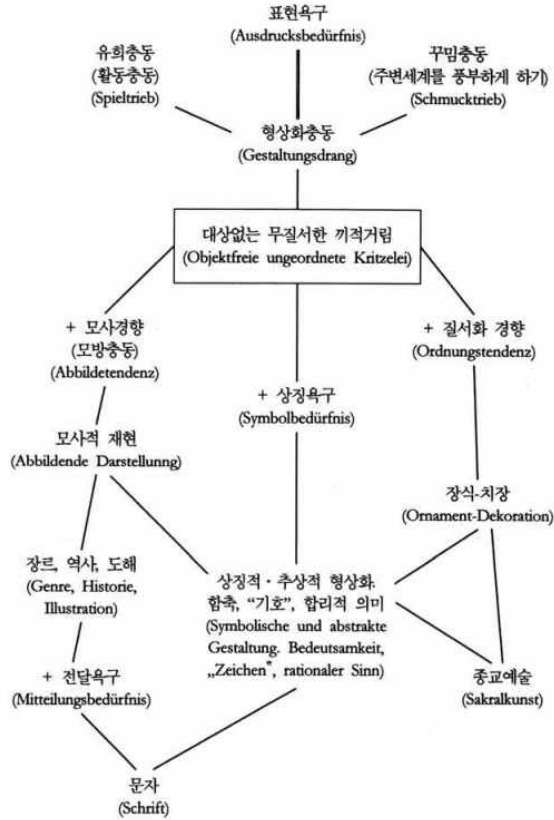
프린츠혼의 연구는 주류(mainstream) 미술 바깥에서 생산된 예술들을 일컫는 '아웃사 이더 아트' 분야가 생겨나는 데 결정적인 토대가 되었다고 평가받는다. 여기서 프린츠 혼이 거론하는 여섯 가지 충동들, 즉 표현욕구, 유희충동, 꾸밈충동, 모사경향, 질서화 경향, 상징욕구는 사회 문화에서 누락된 이들의 조형 충동에 대한 정리이지만 한편 재현 미술의 가치화가 점차 평가절하되어 온 현대미술에서는 새롭게 예술 가치로 재정립이 필요한 실정이다.

추상에 대한 현대 미술의 집념, 차용에 대한 미적 가치 인정, 강박적으로 보이는 표현력, 비숙련을 가시적으로 표방하는 해방적 움직임 등 '정상' 사회로부터의 '배제'가 '강제'된 이들을 위했던 수식어는 다시 '정상' 사회에서의 문화 예술 가치를 위한 준거로 귀환하였다. 그렇다면 '아웃사 이더 아트'란 현재하는가. 그리고 '아르 브뤼와'와 '아웃사 이더 아트'에서 설정한 예술적 가치는 비평 개념으로 여전히 현재하는가를 반문하게 된다. 오래 유효성을 지켜온 아르 브뤼와 아웃사 이더 아트라는 미술사적 개념의 비평적 입지에 대한 질문이 본 연구에 근저한다. 혹은 거기까지 나아가지 못하더라도 생산되고, 유통된 비평 개념은 무엇인지 적어도 실증적인 연구를 수행하고자 했다.

3. 연구 개요

본 연구는 위와 같은 고민을 바탕으로 연구의 출발점을 지금까지 생산된 발달장애미술에 대한 글들을 수합하여 그 텍스트들을 코퍼스 분석의 대상으로 삼는다. 코퍼스 분석은 발달장애미술이라는 대상을 표현할 때 우리가 어떠한 핵심단어들을 사용하는지와 이 핵심어들이 어떠한 단어들과 주로 함께 등장하는지를 파악하여, 발달장애미술이라는 대상에 대해 우리가 의식적/무의식적으로 가지고 있는 의미, 가치 등이 무엇인지를 분석해 낼 수 있다. 바로 이 같은 일차적인 분석을 추출하여 발달장애미술 비평 개념의 현위치를 확인하고자 한다. 근사한 제언까지 가능할지는 불투명하다. 그러나 진단 없는 비평의 미래 설계는 한없이 부실하기만 하고 한없이 비평적 과제를 유예하는, 책임의 방기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본 연구 참여자들에게 발달장애미술가들은 추상적인 존재들이 아니다. 2021년의 경우만 해도 우리 중 다수는 매주 발달장애미술가들을 만나고 이들의 작업, 전시에 대해 함께 고민을 나누는 또 다른 주체들이었다. 발달장애미술씨는 비단 발달장애미술가들만이 아니라 이들의 가족, 보호자들과 함께 역동적으로 움직인다. 연구 참여자들은 발달장애미술가들의 가족과의 만남을 통해서도 여러 가지 현실적인 쟁점들에 대해 청취



[그림-1] 한스 프린츠혼의 도식

할 수 있었으나 무엇보다 이들 구성원들의 가장 큰 바람은 발달장애미술가들의 예술성에 대해 듣고, 이해하고, 인정받기이다. 2인 3각, 3인 4각과 같이 다자 관계로 구성되어 있는 이 예술 현장에서 사실 누구보다 기민하게 발달장애미술가들의 작업적 특징에 대해서 포착해내는 이들은 어쩌면 가족들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를 표현해 내는 비평적 언어의 빈곤함으로 발달장애미술가들은 그 나름의 특수한 이름과 가치로 호명되지 못하고 뭉뚱그려 발달장애미술의 몇 가지 작업적 특징으로 범주화되고 있다. 현실에서 미술치료도, 미술교육도 좋다. 그 역할이 분명 있다. 장애미술을 둘러싼 모든 정책, 제도, 교육, 치료는 그 나름의 시급한 호소를 하고 있다. 비평은 어쩌면 시급한 호소의 순위에서 한참 밀려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장애미술이 분명 어느 길로 나아가야 한다면? 그 걸음을 떼기 위해서는 모티브이션이 너무나 중요하다.

미술의 모티베이션에는 비평이 결코 배제될 수 없고 비평이 큰 힘이자 위안이자, 과거부터 지금까지의 결실이면서 미래를 마중하는 계기가 된다. 장기적 비전을 밝히기를 바라는 지면이지만 《발달장애예술 비평 개념 연구》는 장기적 비전을 스스로 마련하기 어렵다. 이 연구를 통해 파생되는 반향이 장기적으로 변화된 양상을 낳기 바랄 뿐이다. 분명한 것은 발달장애미술가들이 우리에게 추상적인 존재들이 아니듯, 본 연구도 우리에게 추상적인 연구가 결코 아니다. 구체적으로, 이 비평신이 그동안 얼마나 태만하게 작동되어 왔는지 드러내고 이로부터 좀 다르게 출발할 수 있는 비전을 마련하고 싶다.

이를 위해 발달장애미술 비평 개념 연구를 위한 현황 분석을 위해 우선 본 연구가 비평 개념 연구임에 입각하여 학술적인 선행 연구 사례가 있는가에서부터 출발했다. 이후 II장에서 다시 거론하겠지만 '발달장애+비평'을 주제로 했을 때 단 1편의 연구물을 확인할 수 있었고, 연구 범위를 확장해서 '발달장애+예술'을 주제로 했을 때 연구물은 다수 확인 가능하나, 연구의 범위가 미술교육과 미술치료에 편중되어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 같은 현황은 사실 놀랍지도 않다. 장애예술의 창작활성화 조차 제도적으로 확립되지 못한 현실에서 이 창작물에 대한 비평의 활성화는 더 먼 길일 수 있다. 그러나 비평 개념의 빈곤함에 대해 한탄만 할 것이 아니라, 실재로 생산, 유통된 비평글에서 예술계 일원으로서 우리가 얼마나 무반성적인 답습을 하고 있는지 현재까지의 비평글에 대한 코퍼스 분석을 통해 반성하고, 이를 향후 새로운 비평 개념을 발굴해 나가기 위한 근거로 위치지우려고 한다.

4. 연구 질문

본 연구에 있어 크게 설정한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 ◆ 발달장애미술비평, 한정된 비평 언어에 대한 진단
- ◆ 발달장애미술비평은 대상에 대한 설명이 다인가
- ◆ 비평 이전에 선행되어야 할 숙제들
- ◆ 발달장애미술비평은 미술비평의 동일 지평인가, 아닌가
- ◆ 장애미술비평임이 드러나야 하는가, 아닌가
- ◆ 발달장애미술 비평개념은 없는가

위 질문을 본 연구에 대한 외연에 놓고 이제 연구의 과정과 결과를 정리한다. 질문에 대한 우리의 현재적 대답은 V장에서 부족하나마 정리해 놓았다.

II. 연구 과정

1. 실행 절차 및 일정

연구를 위한 실행 절차 및 일정은 다음과 같이 전개되었다.

일정	추진계획	세부계획
3월	연구팀 워크숍	연구 목표, 방향, 추진 일정 등 논의
4월	연구팀 회의	데이터 확보를 위한 리서치 대상, 일정, 수합 방식 등 논의
	1차 리서치 실행	학술정보서비스, 관련 단체 온라인 플랫폼, sns 등에 게재된 비평 조사
5월	연구팀 워크숍	1차 리서치 결과 발표 및 논의 (유의미한 지점 및 한계 등)
	해외 사례 리서치 실행	영어권을 중심으로 해외 비평 사례 조사 및 수합
6월	2차 리서치 실행	1차 리서치 과정에서 추가로 조사된 플랫폼에 게재된 데이터 조사 수합
	해외 사례 리서치 실행	일본을 중심으로 해외 비평 사례 조사 및 수합
7월	연구팀 워크숍	2차 리서치 결과 발표 및 논의 (유의미한 지점 및 한계 등)
		해외 사례 리서치 결과 발표 및 시사점 도출
8월	연구팀 회의	심층인터뷰 대상 확정, 사전 질의서 작성, 인터뷰이 섭외 및 일정 협의
	해외 사례 리서치 실행	호주를 중심으로 해외 비평 사례 조사 및 수합
9월	심층인터뷰 추진	녹취록 정리
	연구팀 워크숍	심층인터뷰 결과 발표 및 시사점, 발전 방안 등 논의
10월	연구팀 회의	AntConc 분석 및 샘플 테스트
	AntConc 분석 실행	국내 자료 AntConc 코퍼스 분석
	결과공유회 계획 수립	토론자 섭외
11월	연구팀 회의	결과공유회 진행상황 점검 등
	AntConc 분석 실행	국외 자료 AntConc 코퍼스 분석
	결과공유회 계획 수립	결과공유회 관련: 장소 확정, 보고회 순서, 역할 분담 등
12월	결과공유회	녹취록 탈고 및 주요 내용 요약
	AntConc 분석 실행	오류 사항 점검 및 취합
	결과공유회	12월 10일 서울장애예술창작센터 시행
1월	결과보고서 작성	보고서 문서 내용 취합 및 작성
2월	결과보고서 완료	결과보고서 제작 완료

연구 역할 분담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졌다.

성명	역할	세부업무
박미연	연구	연구 계획 수립 및 연구 과정 총괄 국내 및 일본 리서치 심층인터뷰 수행 및 녹취록 정리
김현주	연구	국내·외 리서치 심층인터뷰 수행 및 녹취록 정리
전주연	연구	영어권 리서치
남정현	AntConc 실행	AntConc 코퍼스 실행 및 결과값 도출

2. 연구 범위

1) 사전 연구

본격적인 연구에 앞서 국내에서 발표된 장애예술 비평 관련 텍스트 자료를 우선적으로 조사 분석해 보았다. 2022년 연구지원사업을 위한 예비 작업 과정에서 비평 일반의 지형도 검토 이전에 학술 연구 성과를 우선 살펴보아야 했던 절차가 필요했다.⁴⁾ 예비적 연구는 본 연구와 별도로 2018년에 한 차례 수행된 바 있다. 연구자 김현주는 2018년 <가치를 바꾸는 예술> 포럼(주최: 이마고 미술치료 연구소, 주관: 스페셜아트,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복지관, 2018년 10월 25일)의 주제발표자로 참여하여 「장애 예술인들의 예술적 가치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발표를 맡은 경험이 있다.

당시 본 발표에 앞서 주제에 대한 선행 연구 실태를 살펴보기 위하여 '장애 예술+가치'를 고급검색어로 입력하여 국내외 전자저널 및 학술 DB를 검색해 본 결과 146건의 자료가 검색되었다. 학술저널 63건, 학위논문/논문 45건, 단행본 36건, 매거진 1건의 결과를 재검토해보았을 때 학술저널과 학위논문/논문의 결과가 중복되는 경우가 빈번하여 동일 연구를 배제하고, 검색과 논문 주제가 불일치하는 경우 또한 제외시키며, 중심어에는 포함되나 그 연관 관계가 추상적이거나 광범위한 경우 또한 감안할 때, 대략 주제와 부합 가능성이 높은 연구를 추출한 검색 결과는 아래의 [표-1]과 같았다.

4) 사업지원서 상의 내용과 중복되는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유효한 내용이기에, 본 글에서도 다시 다루겠다.

번호	발행연도	주제 및 저자, 저널	키워드
1	2018	윤보 김기창의 화문집 연구 (윤종선, 한국어문학국제학술포럼)	청각장애 문인화
2		시각장애인 관객을 위한 연극 연구: 시각의 청각화를 중심으로 (고은령,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	시각장애인관객관람 시각의 청각화
3	2017	시각장애인의 저작물 접근과 향유에 대한 공익가치론적 연구 (이영희, 한양대학교 대학원)	공공복리 공익적 가치
4	2016	강박장애의 관점에서 본 쿠사마 야요이의 작품세계 (김순자, 미술치료연구)	강박장애 치유
5		예술 비전공 교사의 예술교육 활용 가능성에 대한 연구: 장애아동 대상 예술통합적 방법을 적용한 일반교과 교육사례를 중심으로 (김현주, 무용역사기록학)	예술통합교육 창의적 움직임
6		특수교육에서 오르프 음악지도방법의 수용적 가치 (민경훈, 융합예술치료교육)	특수음악교육 장애
7	2015	장애인무용공연작품을 통해 바라본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의 방향성 (반호정, 한국무용연구회 국제학술발표논문집)	직접공연예술활동
8	2014	문화예술복지정책에서의 장애인의 역할과 체감효용에 관한 연구: 장애인 문화예술향수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정연백, 이석원, 이재완,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문화권 문화복지정책 장애인문화예술향수 지원사업
9		통합놀이환경을 위한 상상어린이공원 분석연구 (송은우, 김신원, 디자인지식저널)	무장애공원 장애인 편의시설
10		모두를 위한 그림책, 장애와 비장애를 넘어: 새로운 문화인지의 관점에서 (신혜은, 어린이문학교육연구)	보편설계그림책 아동인권 문화인지
11		다감각자극 요소를 적용한 아트케어 공간에 관한 연구 (김주연, 김현주, 이종세, 한국공간디자인학회 논문집)	다감각자극 치유 아트케어공간
12		예술 치유의 현황과 발전방안 연구: (가칭)'국립예술치유센터' 설립을 중심으로 (오원식,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치유, 예술치료 예술치유센터
13		2013	통합예술치료 프로그램이 지적장애학생의 정서안정과

		자존감 향상에 미치는 효과(김경, 정영옥, 발달장애연구)	정서안정
14		장애예술인의 창작 활동 경험에 관한 연구 (방기희, 송실대학교 대학원)	장애예술인 창작활동 현상학
15	2012	통합 환경에서 드라마 활동이 장애아동에 대한 비장애아동의 태도 변화에 미치는 영향 (이은영, 교육연구학)	교육적 가치 태도변화
16	2011	장애 정체감으로서의 장애 자부심, 그리고 장애 문화의 가능성에 대한 탐색 (전지혜, 한국장애인복지학)	장애정체성 장애자부심 장애문화
17		직업적응훈련 과정 중에 있는 성인 지적장애인을 위한 미술치료 사례연구 (송주혜, 동국대학교)	직업적응훈련 지적장애인 미술치료
18		지적장애인을 위한 도자공예 교육 프로그램 연구와 사례 (문영환,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지적장애인 도자공예 재활
19	2010	유명 장애 연예인 성공 스토리가 장애인 인식개선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김홍길,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원)	인식개선 장애 연예인 정책적 지원
20	2009	지적 장애 학생을 위한 음악 교육 연구 (최지현, 종합예술과 음악학회지)	음악교육 지적장애
21	2008	폴라쥬 집단미술치료가 생활재활교사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분노표현양식에 미치는 효과 (공정미, 권선진, 이근매, 예술심리치료연구)	집단미술치료 직무스트레스

[표-1] '장애 예술+가치'를 고급검색어로 입력하여 국내외 전자저널 및 학술 DB 검색 결과
(2018년 10월)

검색 결과는 교육과 치료를 통한 가치 수용과 확산 효과에 대한 연구가 많았으며, 문화 창작 활동에 대한 재고와 발전 방안, 공공 복리와 정책적 차원에서의 발의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예술적 가치에 대한 유의미한 연구는 운보 김기창과 쿠사마 야요이(Kusama Yayoi)에 대한 연구 정도로 약술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물론 예술교육과 예술치료에 대한 갈급한 요청을 외면할 수 없고 공공 복리와 정책적 차원에서의 접근 또한 장애예술의 공고한 자리매김에 필수적임을 모르지 않는다. 그러나 2022년 과거 연구를 복기하면서 언제까지 당장의 긴박한 과업들로 인해 예술의 비평적 차원이 계속 밀려나야만 하는 것인가 하는 질문은 여전히 떠나지 않는다. 장애미술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창작 환경 조성과 맞물려 그 창작에 대한 비평 개념 또한 일정 수위까지 성숙 해져야만 한다.

2018년도의 선행 연구 실태를 바탕으로 2022년 현재 본 연구지원사업을 위한 예비 작업을 위해 다시금 학술적 연구 성과를 살펴보는 과정을 거쳤다. 이를 위해 '발달장애+비평'을 고급검색어로 입력하여 국내외 전자저널 및 학술 DB를 검색해 본 결과 단 1건의 학술 논문 검색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 결과는 다음 [표-2]와 같다. 이 결과는 학술적 영역에서 '발달장애+비평'에 대한 접근이 여전히 빈곤함을 방증한다.

번호	발행 연도	주제 및 저자, 저널	키워드
1	2005	정치적 대리인과 방패막이로서의 장애: 한국영화 <말아톤>(2005)에 재현된 '남성의 위기' (우충완,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장애학, 장애재현, 말아톤, 남성성 위기, 헤게모니적 남성성, 서술보정장치, 회색지대

[표-2] '발달장애+비평'을 고급검색어로 입력하여 국내외 전자저널 및 학술 DB 검색 결과 (2022년 1월)

조사를 보다 확대하여 '발달장애+예술'을 고급검색어로 입력하여 국내외 전자저널 및 학술 DB를 검색해 본 결과 학술저널 150건, 학위논문 37건, 보고서 1건, 회의자료 1건 총 189건의 자료를 확인할 수 있었고 주제와 부합 가능성이 높은 연구를 추출해보았을 때 그 검색 결과는 다음의 [표-3]과 같다.

번호	발행 연도	주제 및 저자, 저널	키워드
1	2021	아동 무용동작치료 프로그램 연구 주제범위 문헌고찰 (조희진, 권순용, 한국융합과학회지)	기타체육예술
2		발달장애인의 연극 공동창작에 대한 참여적 실행연구 (박연희, 대구대학교 대학원)	발달장애인, 연극 공동창작
3	2020	장애인에 대한 사회자본의 중요성과 인식 연구 (노승림, 문화와 정치)	예술, 건강 문화정책 장애인 사회자본
4		장애인 평생교육의 인식 및 과제에 관한 연구 (최윤영, 이세희, 융합정보논문지)	장애인평생교육 발달장애인 자기결정
5		발달장애인 예술교육을 위한 독일 심리운동 이론과	독일심리운동

		실천 토대 (원상화, 한국무용교육학회지)	예술교육 발달장애
6		발달장애성인을 위한 대학기반의 문화예술 중심 평생교육 운영에 대한 연구 (김경, 강영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발달장애성인 대학기반 문화예술 중심 평생교육 운영
7	2019	감정인식을 위한 성인발달장애 연극치료 연구 (김미희, 연극예술치료연구)	감정인식 성인발달장애 감정인식도 외적변화도
8		미술치료사의 발달장애 아동 대상 집단치료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허예진, 문경아, 예술심리치료연구)	미술치료사 발달장애아동 집단치료 현상학적 연구
9	2018	발달장애청소년의 공감능력 향상을 위한 통합예술치료프로그램에 관한 질적 사례연구 (신민주, 주용국, 교육현신연구)	교육학
10		진흙 위에서 천천히 피는 꽃: 성인 장애자 대상 미술 수업에서 문화 예술 교육 강사들의 성인 장애자에 대한 현상학적 경험 연구 (김경순, 조형교육)	문화예술교육강사 성인장애자 신경발달장애
11	2017	발달장애 청소년의 문제행동 감소를 위한 집단미술치료 사례 (박창범, 통합심신치유연구)	장애인주간보호시설 발달장애 청소년 집단미술치료 문제행동
12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아동과 지적 장애 아동의 감각처리능력과 행동특성 차이 비교 (위지희, 오은영,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학제간 연구
13	2016	발달장애 청소년의 문화예술교육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 공예교육활동을 중심으로 (이민혜, 허인열, 디지털융복합연구)	장애청소년 문화예술교육 공예교육활동 융합교육
14	2015	미술치료가 전반적 발달장애 유아의 자기 표현력	전반적 발달장애

		증진과 눈-손협응력 발달에 미치는 영향 (박정민, 김병철, 한국예술치료학회지)	자기표현력 눈-손협응능력 미술치료
15	2012	통합예술치료가 발달장애아동과 비장애형제자매와의 관계향상에 미치는 영향 (박사라, 한국예술치료학회지)	통합예술치료 발달장애아동 비장애형제자매 관계향상
16	2011	자폐성 장애 아동의 인지행동 발달을 위한 미술치료 사례연구 (김희수, 동국대학교)	자폐아동 인지행동 미술치료
17		자폐아동의 사회적 향상을 위한 미술치료 사례 연구 (오가영, 문화예술교육연구)	감성과학
18		미술치료가 발달장애유아의 정서지능에 미치는 효과 (김미경, 한국예술치료학회지)	발달장애유아 미술치료 정서지능
19	2009	발달장애유아의 그림발달단계 선호 색채 사용 색채 수 분석 (이규순, 예술심리치료연구)	
20	2006	발달장애아동의 촉각중심 감각활동을 위한 미술치료 매체 활용방안 (김현지, 한국예술치료학회)	

[표-3] '발달장애+예술'을 고급검색어로 입력하여 국내외 전자저널 및 학술 DB 검색 결과
(2022년 1월)

정리하자면, 사전 조사를 통한 장애예술 비평 현황 파악을 위해 포털사이트 학술정보 및 학술연구정보서비스(www.riss.kr)를 중심으로 '장애 예술+가치'로 검색 결과 학술저널 63건, 학위논문 45건, 단행본 36건, 매거진 1건 등 총 146건이 관련 자료로 검색되었다.(2018년 10월 수행) '발달장애+비평'으로 검색했을 때는 단 1건만이 공개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자료로 검색되었다.(2022년 1월 수행) '발달장애+예술'로 검색한 결과 189건의 자료가 확인되었다.(2022년 1월 수행) 이를 종합해 보면 '장애예술', '가치', '발달장애', '비평', '예술'의 검색을 통해 수집된 자료 목록은 336건 정도이다.

이처럼 발달장애미술 비평으로의 갈 길은 시급함에도 한편 '발달장애+예술' 검색 결과에서 흥미로운 지점은 총 189건의 자료 중 2021년 16편, 2020년 14편, 2019년 16편, 2018년 15편 등이 생산되었다는 점이다. 즉 최근 몇 해 동안 발달장애 예술 관련 전체 자료 중 1/3에 해당하는 연구가 도출되고 있다는 점이 고무적이다. 또한 발달장애 예술에 대한 현상학적 접근과 실증적 연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여전히 예술교육과 예술치료에 많은 자료가 편중되고 있다는 점 또한 조사 결과가 시사하는 바이다. 여기까지를 사전 연구로 놓고 2022년 연구를 진행했다.

2) 2022년 수행 연구

학술연구

사전 연구의 결과를 놓고 2022년 연구 수행 과정에서 보다 더 조밀한 지형 탐색을 시도해보았다. 국내외 전자저널 및 학술 DB를 통한 선행 연구 수합의 한계를 체감하였기 때문에 이번에는 학술 저널이 아니더라도 유관 기관에서 수합 가능한 발달장애미술 주제어가 반영된 보고서 형태나 저널에 수록된 장애미술에 대한 리서치를 DB 검색이 아닌 목차 상호대조를 통해 확인했다. 이전까지의 연구가 검색 결과값에 대한 분석에 준하고 있다면, 2022년의 연구 과정에서는 비록 본 연구가 코퍼스 분석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수합 자료에 대한 질적 분석을 배제할 이유는 없다고 판단했다. 여기서 유의미한 몇 가지 지점에 대해 밝힌다.

‘발달장애+가치’, ‘발달장애+비평’, ‘발달장애+예술’ 검색에서 조망하지 못했던 연구 성과를 위해 검색어를 보다 더 구체화시켜 보았다. ‘아웃사이드어 아트’를 키워드로 검색해본 결과 한의정의 「강박의 박물관: 하랄트 제만과 아웃사이드어 아트」(『현대미술사연구』, 2019)를 찾을 수 있었다. 이 논문이 유의미한 것은 하랄트 제만(Harald Szeemann)이라는 걸출한 세계적 큐레이터의 전시 철학을 아웃사이드어 아트와 연관짓고 있다는 점이다. 한의정은 뒤뷔페가 아르 브뤼를 제도권 ‘밖’의 예술 즉 정상 범주를 ‘벗어난’ 작품으로 한정짓고 있다면 제만은 이 경계를 허물고 “오직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광인들만이 최근 제도권 예술의 과잉 속에서 완전히 잊혀졌던 강렬함의 단계를 생산해낼 수 있다”⁵⁾는 입장을 전개했다고 평가한다. 의식과 무의식에서 장애예술을 ‘뒹어두려’는 많은 시도와 억압을 뛰어넘는 전략을 제만이 구사했다고 보고 있다. 더불어 이 논문에서는 다수의 아웃사이드어 아트 작가들을 거론하며 장애미술을 미술사적으로 접근해볼 수 있는 근거를 닦고 있다.

한의정은 위 논문보다 앞서 「아르 브뤼(Art brut)의 범주와 역사에 관한 연구」(『현대미술사연구』, 2013)를 발표한 바 있는데 이 논문을 통해 아르 브뤼 전사(全史), 시기별 특징, 아르 브뤼 콜렉션 작가 등을 소개하면서 아르 브뤼 대표적 작가와 미술사적으로

5) 한의정, 「강박의 박물관: 하랄트 제만과 아웃사이드어 아트」, 『현대미술사연구』, 46, 2019. 한의정의 논문에서 제만의 글을 인용했다. p. 17.

주요하게 관련된 전시를 소개하고 있다. 특히 전시로 열거하는 《퇴폐미술전(Entartete Kunst)》(1937)이나 《예술의 특이한 경우들(Les singuliers de l'art)》(파리 시립근대 미술관, 1978), 《아웃사이더: 전통 없는 예술(Outsiders)》전(런던 헤이워드 갤러리, 1979), 1993년 뉴욕에서 시작된 아웃사이더 아트 페어 등은 장애미술전시를 주변화시키는 세태를 극복할 수 있는 주요 전거로 가치가 충분하다. 무엇보다 한의정의 제안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그는 아르 브뤼, 아웃사이더란 용어 자체가 차별적이기 때문에 에이블 아트, 스페셜 아트, 보더라인 아트와 같은 용어를 대안으로 제시한다. 국내외 장애미술 현황과 추이를 떠올려볼 때 10년 전 한의정의 제안은 유효한 미래에 대해 제기한 대목으로 보인다.

그외 한의정은 「소수 예술: 들뢰즈의 미학과 아르 브뤼」(『미학 예술학 연구』, 2014)를 통해 들뢰즈와 가타리의 소수문학에 대한 입장⁶⁾에 근거해서 문학에서 나아가 예술 실천을 주목하면서 소수 예술의 사례를 짚으며 소수자-되기의 가치를 피력한다. 그에게 소수자-되기는 “물적 소수자로 변한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물적 동일성에서 벗어나 소수자 운동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것은 다수자가 소수자에게 무엇인가를 베푸는 것이 아니다. 소수자-되기는 다수자-소수자라는 이항 구조를 해체하는 데 초점을 두는 운동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동일성에 머물지 않고 운동과 변화로서 존재”⁷⁾함을 의미한다.

2010년대 이후 한의정이 대표적으로 미학, 미술사학적 연구 성과에서 의미심장한 학술적 성과로 두각을 보인다면, 현장에 적용가능한 실증적인 연구 또한 발견할 수 있었다. 주된 몇 가지 연구에 대해서 약술해 보겠다. 우선 김건희의 「장애인의 미술전시회 참여에 관한 연구」(『지적장애연구』, 2013)는 미술전시회 직접 참여한 4명의 장애인과 지도강사, 행정가 2인의 면담을 통해 전시가 장애인에게 전한 성취와 효용에 대한 인터뷰 내용을 상세히 수록하고 있다. 이들이 보인 전문가적 열정과 능력, 삶의 질 향상, 사회화 과정은 장애인의 문화예술적 활동의 사회적 확대에 대한 가치를 재고시킨다.

남영림의 「한국 미술교육에서 장애 담론에 대한 논의와 시사점에 관한 연구」(『미술과 교육』, 2015)는 미술치료 중심에서 미술교과 교육활동으로의 이행을 촉구하면서 이 이행이 지닌 사회 문화적 차원에 대해 숙고하게 만든다. 여기에는 미디어 리터러시를 통한 인식 재고 방향과 당사자성에 입각한 장애인 목소리 반영, 미술교육과정에 장애에

6) 한의정은 「소수 예술: 들뢰즈의 미학과 아르 브뤼」, 『미학 예술학 연구』, 41집, 2014. 들뢰즈와 가타리에 따르면 소수문학은 “소수 언어의 문학이 아니라 오히려 다수 언어 안에서 만들어진 소수자의 문학”을 의미한다. pp. 215-216.

7) 위의 글, p. 231.

술가 작품 반영을 제안하고 있다. 치료와 복지의 대상 아닌, 문화적 주체로 장애인의
옹립을 주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방향성과도 맥을 같이 하고 있다.

2018년도에 발표된 김나운의 「장애인 문화예술교육을 기반한 사회적기업 운영 사례연구」(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는 일본의 하나아트센터, 미국의 Creative Growth Art Center와 같은 해외 사례뿐만 아니라 국내 사회적기업으로 더베프, 스페셜아트, 오티스타를 사례로 들어 이들 사이에서 '사회서비스형', '사회공헌형=사회서비스형+판매형', '사회공헌형=사회서비스형+일자리창출형'의 도식을 도출하고 장애인 예술창작활동이 기업의 공유가치 창출모델 활성화의 방안임을 제시한다.

정지은, 박정배의 「장애인 문화예술교육의 운영 방안에 관한 사례연구: 일본 하나아트센터와 수원 에이블아트센터를 중심으로」(『상품학연구』, 2019) 또한 일본 하나아트센터와 수원 에이블아트센터의 비교 분석을 통해 교육에서 출발해서 전문 예술인으로 양성하고 나아가 수익 창출이 가능한 상품을 제작하여 장애 예술인에게 수익을 환원하는 모델을 유의미하게 분석하고 있다. 김나운의 논문과 연동해서 '창작'이라는 예술 개념을 '생산'이라는 사회경제적 차원으로 변환할 수 있는 방식과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에서 흥미로웠다.

전지영의 「장애예술과 장애인예술의 개념 논의」(『한국예술연구』, 2021)는 장애예술과 장애인예술이 혼용되는 현실에서 장애인예술이 '장애인이 하는 예술'이라는 모호한 개념임을 짚으며 이 과정에서의 장애인 타자화의 문제점을 시사하면서 '장애예술'로의 성찰과 이행을 통해 평등한 인권과 보다 나은 세계 지향을 저술 목적으로 한다. 그 과정에서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활동의 시행 방향성에 대한 진단을 수반하고 있어서 시사점이 있다.

더불어 학술 연구 중 장애예술에서 최근 널리 사용되는 '포용적 예술(inclusive arts)'에 대한 연구가 있어서 반가웠다. 박신의, 심규선, 주명신이 발표한 「'포용적 예술(inclusive arts)'을 통한 장애 예술의 개념적 연구」(『문화예술경영학연구』, 2018)는 영국 문화예술 지형 중 특히 장애 예술과 관련한 역사적 맥락을 짚으면서 포용적 미술이 도출된 흐름을 소개한다. "포용적 예술이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포함한 다양한 소수집단들의 예술활동과 관련된 창의적 활동과 이에 관련된 미학적 전략을 포괄하는 용어"⁸⁾로 사회적 배제에 대한 상대 개념으로 대두됐다. 그러나 정책적 개념 이상으로 현대예술의 흐름 안에 포용적 예술의 실천 사례를 직조하면서 얼마든지 예술 안에서

8) 박신의, p. 46.

협력, 소통, 교류를 통해 문화다양성을 추구하는 방향에 대해서도 제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적 가치를 갖는다.

저널 및 기관 발간물 연구

근래 발달장애미술과 관련한 기관발행물의 양이 증가하고 있음은 주목할 사실이다. 생산의 주요 주체는 서울문화재단 잠실창작스튜디오(現 서울장애예술창작센터),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등을 특칭할 수 있다. 잠실창작스튜디오에서는 작가와 전문 비평가 매칭을 통해 장애작가 작품 활동에 대한 동시대미술씬에서의 위치를 꾸준히 탐문하고 있다. 창작과 비평 활동에 방점 하나가 찍혀 있다면 한편 장애/비장애에 놓인 바(bar) 불식을 위한 꾸준한 워크숍 활동도 특징적이다. 특히 2020년 『같이잇는 가치』에 수록된 아티스트 토크(참여: 안소연, 추성아, 송고은, 정효섭)는 “장애예술” 가치 대신 “예술”의 가치로 질문을 옮겨 현재 벌어지고 있는 예술적 과업에 적절한 이름붙이기를 다시 시도했다.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의 기관 미션은 조금 다른 방향에 맞춰 설정되어 있는데 예술교육보다 그 이전의 주요한 쟁점이 될 수 있는, 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신경쓰고 있다. 『좁은 지대에서 넓게 펼치는 질문』(2022)은 발달장애인 특성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연구개발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는데 무엇보다 기존 프로그램 연구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어서 흩어져 있는 교육 방향에 대한 매듭을 하나 짓고 있다. 이보다 한해 앞서 발간된 『발달장애인 문화예술 프로그램 조사 및 정책과제 수립 연구보고서』(2021)는 전반적인 전수조사에 해당할 만큼 전국 단위로 문화예술교육 현황 및 사례 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그밖에 발달장애인 특성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로 기존프로그램 연구와 신규프로그램 연구를 이원화시켜 장애예술과 관련된 통시성과 동시성 양자 모두를 강화시키려는 시도를 수행하고 있음이 확인 가능하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예술교육 전반에 고른 활동 방향을 유지하면서도 장애예술과 관련한 기관 안팎의 자료 아카이브도 공개하고 있다. 산재한 자료가 수합될 수 있는 플랫폼이 마련되어 있다는 점이 고무적인데, 다운로드 수에서는 100회를 상회라는 자료가 많지 않다는 점에서 자료 확산을 위한 홍보가 조금 아쉽게 느껴진다.

한편 미술전문잡지에서 장애예술을 이슈로 삼은 기획은 특정 시기에 한정적인 점이 아쉽다. 『월간미술』 2014년 6월 〈This is Being Art〉를 기획 꼭지로 장애예술인과 장애예술관련 기관을 짧게나마 소개하고 있다. 그밖의 자료들은 아직 흩어져 있어서 기획자 개인이나 비평가 개인의 입장으로 전해진다. 『퍼블릭아트』 2020년 1월 〈문화로

가는 길의 장벽을 허물다)와 같은 짧은 꼭지가 있다. 이상의 흐름이 학계 연구/기관/저널 발간물/ 이다보니 발달장애예술인에 대한 현장의 움직임이 발빠르게 반영되지 못한 결과라고 진단할 수 있다. 장애/비장애 구분이 무색하게 최근 경향을 보더라도 발달장애예술에 대한 현장의 동향은 눈여겨볼만 하다. 2021년 북서울시립미술관에서 개최된 《길은 너무나 길고 종이는 조그맣기 때문에》는 발달장애 작가 16인과 정신장애 작가 6인의 전시를 근사하게 선보인 바 있다. 공공전시기관에서 발달장애, 정신장애 작가들의 작품 활동을 작품과 더불어 창작과 관련한 아카이브까지 두루 조망하여 소개하였고 밝은방의 김호나 대표가 힘주어 소개하는 김신식 평론가의 「다섯 가지 이야기」와 같은 비평글이 도록에 수록되어 장애예술과 관련한 현황을 진단하는 것 이상의 외연에 대해 시사하는 바를 간취해 낼 수 있다.

또한 잠실창작스튜디오에서 개최하는 결과보고전이 지난 몇해간 장애작가 소개 및 작품 나열을 반성적으로 재고하는 전시 공학을 보여줬다는 점도 주목해 볼만 하다. 2021년 잠실창작스튜디오 결과보고전 《나란히 함께, 이미지 형태 파레이도리아》의 경우 창작스튜디오에 입주한 장애작가 전원의 작품을 선보이면서도 입주한 발달장애 작가의 비율이 상당히 높음을 보여주고 그 작업들에 대해 다원예술적 가치를 부여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과업을 새로 갱신하지 않으면 분명 반복에 그치기 쉽다. 이처럼 예술 실천과 관련한 레퍼런스로부터 파생되는 다음 과제 설정이 가능해야만 후속 과제가 돌출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2022년 봄 스페이스 K에서 개최된 이근민 개인전 《그리고 아무도 아프지 않았다》도 주요 전시로 거론될 만 하다. 경계성 인격장애를 겪는 이근민의 작품 세계를 조망하면서 무엇보다 해외에서 이미 주목받기 시작한 이근민 작가를 한국 지형에 끌어오면서 한국 예술 지형에서 누락시킨 화두를 접화시켰다.

학술연구, 저널 및 기관 발간물, 전시와 관련한 조사에 대해 짚고 있으나 여전히 모든 지형을 두루 점검했는가에 대해서는 미지수다. 그러나 본 연구의 목표가 포커스 분석에 초점이 맞춰있다는 점에서 아쉬움은 후속 과제로 이행하기로 한다.

3. 실행방법

1) 자료 수집

장애예술 비평 관련 자료 수집을 위해 사전 조사 때 활용한 포털사이트 학술정보 및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외에 네오룩, 아트바바, 아트맵, 아트허브 등 미술전시 정보 사

이트 및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한국장애예술인협회, 강남장애인복지관, 서울장애예술창작센터 등 장애예술인 유관 기관 및 협회의 홈페이지 자료를 조사하였다. 또한 발달장애예술인의 육성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민간 단체의 홈페이지 및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 sns까지 조사 대상으로 삼았다. 조사 대상으로 삼은 민간 단체로 스페셜아트, 한국 아르브뤼, 벗이미술관, 시스플래닛, 허니아트, 밀알복지재단, 로사이드, 에이블아트, 디스에이블드, 스프링 샤인, 아르브뤼코리아, 누구나, 밝은방, 도와지, 비기자 등 15여 곳이 있다. 언급한 기관 및 플랫폼에 게재되어 있는 장애예술 관련 전시글과 작가 소개글 및 비평 텍스트를 확보하였다.

국내에서 수집할 수 있는 자료는 위와 같은 방식으로 확보하였으나, 해외 사례는 현장 답사를 통한 직접관찰이나 인터뷰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학술연구정보서비스 및 구글 스칼라, 해외의 장애예술 단체 홈페이지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자료 수집을 실행하였다. 사전 조사 단계에서 일본의 에이블 아트 재팬과 미국의 Creative Growth Art Center 홈페이지 자료를 확인하였다. 해외 유관기관 홈페이지 리서치 및 자료 수집의 결과 미국의 경우 가장 대표적인 장애예술 기관이라 할 수 있는 Creative Growth Art Center를 비롯하여 Intuit: The Center for Intuitive and Outsider Art, NIAD(National Institute of Art & Disabilities)에서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호주는 Art Project Australia, 영국에서는 Rockets을 리서치 및 수집 대상으로 삼았다. 그리고 일본은 사전 조사 단계에서 확인한 에이블 아트 재팬을 포함하여 야마나미 공방, 아틀리에 코너스, 하나아트센터 등 4곳의 기관 홈페이지에서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는 자료들을 수집하였다. 장애예술 비평 관련 자료 수집을 위해 리서치한 국내·외 유관 기관의 목록은 아래 [표-4]와 같다.

지역	자료 출처	기관명
국내	홈페이지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한국장애예술인협회, 강남장애인복지관, 서울장애예술창작센터
		스페셜아트, 한국 아르브뤼, 벗이미술관, 시스플래닛, 허니아트, 밀알복지재단, 로사이드, 에이블아트, 디스에이블드, 스프링 샤인, 아르브뤼코리아, 누구나, 밝은방, 도와지, 비기자
	미술정보 사이트	네오룩, 아트바바, 아트맵, 아트허브
	유통 출판물	매거진(월간미술, 아트인컬처, 퍼블릭아트), 도록(장애인 창작 아트페어)
	단체 자료	연구보고서 및 결과자료집(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경기문화재단 등)
	DBpia	전시서문, 소속작가 포트폴리오 장애예술 관련 학술논문 11편

미국	홈페이지	Creative Growth Art Center, Intuit: The Center for Intuitive and Outsider Art, NIAD
영국	홈페이지	Rockets
호주	홈페이지	Art Project Australia
일본	홈페이지	에이블 아트 재팬, 야마나미 공방, 아틀리에 코너스, 하나아트센터

[표-4] 장애예술 비평 자료 출처

해외의 경우 홈페이지를 통해 기관의 특징을 포착할 수 있었다. Creative Growth Art Center는 작가 활동 사항에 대한 자세한 소개, 작업 과정, instructor의 코멘트, 작업 사진들이 높은 퀄리티를 보여주는 등 작가 소개에 많은 할애를 하고 있다. 호주의 Art Project Australia는 작가 스튜디오 운영, 전시 개최, 판매, 출판, 교육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작가들을 서포트 하고 있으며, 온라인 전시도 진행하고 있다. 일본의 야마나미 공방은 1970~1990년대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창작자들이 다수 활동하고 있는데, 작가 소개글이 출생년도, 지역, 야마나미 공방 활동 시작 연도, 간단한 개인사, 작업 시작 시기, 작업 발전의 계기, 작업과 개인사와의 관계, 인성 등을 일정한 형식을 갖추어 게재되어 있다. 에이블 아트 재팬의 경우 에이블 아트 어워드를 2022년 기준으로 25회 정도 이어왔으며, 홈페이지에는 에이블 아트 어워드 심사평이 게재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한편 장애예술인의 목소리를 담아내기 위해 심층인터뷰도 진행하였다. 1차 리서치를 통해 위의 단체들 중에서 장애예술 비평과 관련하여 비교적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있는 단체 4곳을 선정하여 운영자와의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심층인터뷰는 연구원과 인터뷰이와의 일대일 대면 형식을 취하였으며, 인터뷰 전에 사전 질의서를 통해 본 연구의 목적 및 질문을 공유하였다. 인터뷰 시간은 애초 30분을 예상하였으나, 사전 질문에 대한 답변 청취 이외에도 단체 및 인터뷰이의 활동 현황, 현재 장애예술인에 대한 시각 등 단체 및 인터뷰이의 특성에 따른 개별 질문을 인터뷰 현장에서 추가함으로써 평균 1~2시간이 소요되었다. 인터뷰 이외에도 인터뷰이가 소속된 단체가 생산한 도록, 리플렛, 브로셔 등 인쇄물 형태의 자료도 대면 인터뷰를 통해 확인 혹은 요청함으로써 온라인상에서 확인하기 어려웠던 자료들도 수급하였다.

심층인터뷰 인터뷰이는 김민정 대표(스페셜아트), 김호나 공동대표(창작그룹 밝은방), 이승주 매니저(서울장애예술창작센터), 최선영 실장(유구리 최실장) 등 4명을 진행하였는데, 지면 관계상 인터뷰이별로 중요 내용이라고 판단된 답변과 의견을 아래와 같이 간략하게나마 수록한다.

저희는 결국 안전하게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는 작업실이 가장 큰 메인인 것 같아요. 그들(장애 예술인들)이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없잖아요. 저희가 작업실을 운영하면서 그들이 성장할 수 있는 작업 공간 그리고 그 안에서 좋은 강사들, 전문 예술인들과 계속 영향받고 작업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가장 큰 부분인 것 같아요._김민정 대표(스페셜아트)

비평을 거의 접하지 못했습니다. 콘텐츠가 거의 없다고 봐야죠. 그저 그런 것은 있는데 제대로 된 콘텐츠는 없습니다. 리서치를 충분히 했었고, 여러 책자도 다 봤고, 그런데 뭔가 작업물과 설명이 동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억지로 썼다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포인트 하나로 썼구나 하는 말이죠. 그래서 실망이 많았습니다. 언어가 거의 없어요. 단기적인 사업이고, 비평가들도 주어진 시간에 한계가 있고, 이 작업의 특성과 맞지 않는, 흔히 비평가들이 미술 제도 안에서 운영되는 시스템에서 주어진 게 분명해서 한계가 있고 시간이 너무 모자란 게 보입니다. 누군가를 새롭게 만난다고 해서 소통이 되는 게 아닌데, 비언어적 소통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_김효나 공동대표(창작그림 밝은방)

발달장애 작가의 경우 부모님이 후견인 같은 역할을 하면서 예술 활동을 서포트하시는데 이분들에게 있어서 비평이라는 것이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지 봤을 때 약간 본인 자식에 대한 어떤 칭찬의 말들을 권위자들의 언어로 받고 싶어 하는 경향이 좀 있더라고요...장애 예술인의 작품들이나 아니면 장애 예술인 자체가 한국 사회에서 살아오는 어떤 맥락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겹해서 작품들을 읽어줄 수 있는 비평가 그룹이나 아니면 그걸 매개할 수 있는 분들이 더 많이 생겨야겠다는 생각이 일단 있어요. 이견 현장활동가의 입장에서 바라는 바예요. 또 하나는 장애 예술인 그룹 안에서 특히 발달장애를 특정해서 본다면 부모님이나 이런 분들이 동시대적인 예술에 대한 전제가 되게 많이 달라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니즈가 어디까지인지 본인의 욕망이 어디까지인지를 서로 정직하게 증명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_이승주 매니저(서울장애예술창작센터)

100번 말해서 들을 사람은 한 번 말하면 해요. 근데 절대 안 돼요.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도 솔직히 매우 존중해요. 정말 먹고 살아내기 힘들거든요. 왜 부모가 자녀를 죽이고 죽는지 너무 이해를 해요. 그래서 저는 “하셔라. 굶주려 죽어라.” 이제는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그때는 완전 아니었는데 “하셔라. 하시고 싶은 만큼 하셔보고 안 될 수도 있다. 대신 안 됐으면 또 실패하는 경험도 되게 중요하다. 그때 가서 또 다른 선택을 하시면 좋겠다. 로사이드때 엄청 많은 건 아니었지만 여러 부모님들 중에서 딱 한 분만 저랑 생각이 아주 잘 맞아서 지금까지 굉장히 그냥 친구처럼 지내고 있어요. 그 자녀분이 가장 창작자스럽게 살고 있어요._최선영 실장(유구리 최실장)

2) 자료 목록

위와 같이 다양하게 자료의 소스 출처를 확인하면서 본 연구에 관련성을 가지는 자료들을 선별하였다. 많은 경우 발달장애예술과 관련된 텍스트, 이미지 등 자료가 충분치 않았다. 텍스트의 경우도 단순한 작가 소개나 장애의 유형에 치우친 내용이 적지 않았으며, 유관기관의 홈페이지 경우 기관의 연혁 및 굿즈 등 상품 소개도 적지 않았다.

자료 수집을 위해 위에서 밝힌 출처 목록에서 미술정보 사이트의 경우 발달장애, 아르브뤼, 에이블아트, 자폐, 장애예술 등 관련 텍스트를 검색할 수 있는 키워드를 입력하여 관련 글들을 수집하였다. 국내외 유관기관의 경우 작가소개 혹은 전시서문 등 비평과 관련성이 높은 텍스트를 중심으로 선택, 수집하였다.

플랫폼	기관명	검색 방식	검색 결과
미술정보 사이트	네오룩, 아트허브	검색어 입력 (발달장애)	17개 텍스트 수합
		검색어 입력 (아르브뤼)	3개 텍스트 수합
		검색어 입력 (에이블아트)	10개 텍스트 수합
		검색어 입력 (자폐)	14개 텍스트 수합
		검색어 입력 (장애예술)	5개 텍스트 수합
유관 기관 홈페이지	디스에이블드, 로사이드, 밝은방, 에이블아트, 서울장애예술창작센터, 한국장애예술인협회 등	전시서문, 작가 소개 텍스트 검색	총 59인의 작가 관련 글 수합
	Creative Growth Art Center	작가소개 텍스트 검색	총 95인의 작가 관련 글 수합
	야마나미 공방, 에이블아트 재팬, 아틀리에 코너스		총 98인의 작가 관련 글 수합
	Art Project Australia		총 77인의 작가 관련 글 수합

[표-5] 장애예술 비평 자료 수집 결과

3) 분석 프로그램

연구 초기 단계에서 홈페이지 및 미술정보 사이트 등에서 수집한 국내 자료 중 작가 소개글을 1차 분석의 로데이터(raw data)로 삼아 독해를 거치면서 연구 목적과 부합된다고 판단되는 어휘를 추출하여 코딩 작업을 거쳤다. 구조화된 어휘 분석들을 선행 연구를 기반으로 재구성한 뒤, 구조화된 분류체계를 생성하였다. 이는 코퍼스에 기반한

어휘 분석으로, 이는 어휘의 양적, 질적 분석의 기본적인 방식이다. 본 연구 목적 및 질문에 다다르기 위해서 텍스트의 구조나 문법이 아닌 어휘 분석이 필수 단계이며 이 분석을 거친 뒤에 양적인 데이터 수치화 및 질적 해석이 가능하다. 코퍼스에 기반한 어휘 분석에 사용한 프로그램은 로렌스 앤서니(Laurence Anthony)가 오픈소스로 개발하여 공개한 AntConc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AntConc는 텍스트 상에서 사용된 낱말들의 빈도수를 순서대로 추출하는 프로그램이다. AntConc는 전공자 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쉽게 익숙해 질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구동과 안정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본 연구의 툴로 사용하였다.

III. 분석 방법 및 결과

1. 분석 개요

발달장애미술 비평 개념 연구 방법은 텍스트 분석 중에서도 어휘 분석을 채택하였다. 노먼 페어클럽에 따르면 어휘 분석을 통해 낱말들이 갖는 '체험적' 가치 및 '관계적' 가치 그리고 '표현적' 가치를 파악할 수 있다. 체험적 가치의 하위 항목으로는 어떤 분류 열개가 이용되었는지, 이념상으로 논란이 되는 낱말이 포함되어 있는지, 반복 어휘 표현 또한 과도한 어휘 표현이 있는지, 낱말들 사이에 의미관계(동의, 반의 등)가 있는지가 있다. 관계적 가치에는 완곡한 표현이 들어 있는지, 유표적으로 격식적인 혹은 비격식적인 낱말들이 들어있는지가 속한다.⁹⁾ 페어클럽이 분류한 가치 체계들 중에서 본 연구는 체험적 가치를 중심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1. 낱말들이 어떤 '체험적' 가치를 지니는가?
 - (1) 어떤 분류 열개가 이용되는가?
 - (2) 이념상으로 논란이 되는 낱말들이 들어 있는가?
 - (3) 반복 어휘 표현 또는 과도한 어휘 표현이 있는가?
 - (4) 낱말들 사이에 이념상으로 중요한 어떤 의미 관계(동의·하의·반의)가 있는가?
2. 낱말들이 어떤 '관계적' 가치를 지니는가?
 - (1) 완곡한 표현들이 들어 있는가?
 - (2) 유표적으로 격식적인 또는 비격식적인 낱말들이 있는가?
3. 낱말들이 어떤 '표현적' 가치를 지니는가?
4. 어떤 비유가 쓰이는가?

[표-6] 노먼 페어클럽의 어휘 분석 질문

어휘 분석을 위해 우선 수집된 텍스트를 읽어가면 비평과 최소한의 연결성을 지니고 있으며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낱말들을 추출하여 1차 텍스트 분석을 실행하였다. 1차 텍스트 분석 실행에 참고가 된 분석 범주표의 샘플은 다음과 같다.¹⁰⁾

9) 노먼 페어클럽, 『언어와 권력』, 김지홍 옮김, 경진, 2011, p. 105.

10) 김예나. (2014). 예술가가 운영하는 복합문화공간에 대한 질적 연구-식문화공간을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p. 33.

<표 9> 운영자 영역 분석표 일부

총괄용어	내용/의미론적 연관		포함용어	
복합문화공간에서 하는 일	현재 수행하는 일	프로그램 개발 및 기획 활동	프로그램 개발	프로젝트 프로그램 개발(축제, 전시, 서브컬처, 파티)
			전시기획 축제기획	전시 기획 입주한 동네 축제 기획
		교육활동	야학 강의, 강좌 강사 섭외	
		공연 및 전시 활동	퍼포먼스 설치 전시 스크리닝 방송	
		아트마켓 운영 식문화	그림 판매 음식, 음료	
	일의 성격	실험성 추구	실험적으로 만들기	
		다양성 추구	다양한 길 추구	
		개방성 추구	하고 싶은 일들을 찾기	
		사람들(주민)의 참여 추구 사람들(주민)의 관심 추구	참여 자극할 수 있는 것들을 함(하위 문화적 실천)	
	운영자 정보	운영자들의 전공	예술 관련 분야	예술
예술경영				예술경영/ 아트 매니지먼트 예술사/ 예술 이론 전공
운영자들의 과거 직업		예술기획 관련 종사자	작가	작가
			예술기획자 예술기관 종사자	회사대표 큐레이터 아티스트 프로젝트팀
예술에 대한 관점		재미있는 작업(예술일)	작업 자체는 너무 재미	순발력
		목표 없이 재미와 순수를 추구함	목표 없이 재미 있는 일을 찾아서 함	새로움의 추구 하위 문화적 방식의 일과

총괄용어-내용/의미론적 연관/포함언어로 구성되는 분석 결과값에 입각하여 발달장애 미술 비평 개념 연구 항목표를 고안해 볼 때 아래 [표-7]과 같이 포함용어로 나열된 낱말들의 내용과 의미론적 연관성을 파악하여 총괄용어로 명명한 상위 개념을 도출하였다. 총괄용어와 총괄용어의 하위를 구성하는 내용/의미론적 연관을 드러내는 항목 범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총괄용어로는 크게 1) 작품소개, 2)표현 방식, 3) 작품 평가로 나누어 볼 수 있었다. 각각의 하위 범주에 대해서도 표를 통해 파악할 수 있겠다. 연구 방법론 상 귀납적 방식으로 구성된 텍스트 분석 결과이나 총괄용어와 내용/의미론적 연관된 포함용어를 살펴보면 작품 분석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접근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확인 가능하다.

총괄용어	내용/의미론적 연관			
작품 소개	유형	실재	도시	수직적
				수평적
			구상	자연
				사람
				동물
				식물
				정물
				텍스트
		비구상		
		가상	공간	
캐릭터				
표현 방식	무형			
	매체			
	재료			
	장르			
	세부 방식			
	경험의 유무			유 경험
			무 경험	
작품 평가	작가의 태도			외적
				내적
	작품의 인상			심리적
				시각적
	미적 평가			

[표-7] 1차 텍스트 분석 결과

국내·외 분석 결과의 개요는 아래 [표-8]과 같다.

지역		한국	미국	일본	호주
총 어휘 수		10,282	3,005	3,796	1,579
2번 이상 사용된 어휘	어휘 수	2,803	1230	992	677
	비율	27%	40.9%	26%	42.9%
3번 이상 사용된 어휘	어휘 수	1,415	716	476	408
	비율	13.3%	23.8%	12.5%	25.8%

[표-8] AntConc 어휘 분석 개요

2. 국내 분석

1) 국내 작가 비평글 분석

1차 텍스트 분석을 통한 구조화한 분류체계를 유지하면서 보다 면밀한 분석을 위한 2차 텍스트 분석은 로렌스 앤서니(Laurence Anthony)의 AntConc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발달장애미술 비평글 49편을 프로그램에 입력한 결과 총 7152개의 낱말이 사용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이 중에서 지시대명사, 보조 동사, 접속사, 부사, 접미사, 작가 이름과 같은 고유명사를 제외한 낱말들 1376개를 2차 텍스트 분석 데이터로 삼았다.

총괄용어	내용/의미론적 연관					포함용어	
작품 소재 (12)	유형 (14)	실재	풍경 (11)	도시	수직적	수도(5) 집(4)	
					수평적	길(4)	
				자연(8)		하늘(3)	
			구상	사람(73)	관계	나(28) 너(19) 친구(4)	
					신체(30)	눈(13) 손(4)	
				동물(4)		나비(4) 물고기(4)	
				식물		꽃(7) 나무(9)	
			정물(4)		책(4) 피아노(3)		
			텍스트		이야기(16) 글(4)		
			비구상	기하학		공간(22) 각도(5) 선(5)	
		색채(21)					
		감정(44)		울림(4) 위로(4) 희망(7) 사랑(3) 내면(8) 거짓(3) 가슴(3)			
		가상	매개체		미래(4) 꿈(10)		
			캐릭터(3)				

제작 방식	매체		서양화(7) 드로잉(7) 사진(3) 캘리그래피(11) 조각(4)
	재료(7)		
	표현 행위(29)		설치(5) 만들다(18) 꾸미다(4) 그리다(40)
	구성		
	경험의 유무	유 경험	
무 경험			
작품 평가	작가의 태도		꾸준하다(5) 적극적이다(4)
	작품의 인상	심리적	행복하다(5) 솔직하다(4) 익숙하다(4) 즐겁다(7) 흥미롭다(6) 재미있다(3) 따뜻하다(6) 소중하다(3)
		시각적	새롭다(11) 자유롭다(16) 순수하다(8) 변화무쌍하다(4) 섬세하다(4) 평범하다(4) 화려하다(4) 곱다(3) 이상하다(3) 자업스럽다(3) 미묘하다(3)
	미적 평가		아름답다(28) 독특하다(19) 다르다(4) 숭고하다(3)

[표-9] 국내 작가 비평글 분석 결과

코퍼스 분석 결과 국내 작가 비평글에서 가장 빈번하게 추출된 단어는 '그림'이다. 즉 발달장애미술 비평에서 입체보다 평면 작품이 주를 이루고 있음이 이 어휘에서 드러나는데 여기서 한가지 쟁점은 비록 미술의 매체 장르 구분이 동시대 미술에서 큰 의미를 발휘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매체 장르 구분 상 통용되는 단어인 '회화' 대신 그림이라는 단어가 가장 두드러진다는 점에서 질문이 제기되는 바이다. '회화' 대신 '그림'이라는 단어 사용을 통해 작품으로서의 가치 적용에서 한 걸음 유보적인 입장을 반증하는 것은 아닌가하는 지점이다.

작품 소개를 통해 시사하는 바는 사람이 등장하는 비중이 월등히 높다는 점이다. 특히 '나'에 대한 빈도가 높다는 점은 작품 읽기의 방식이 창작자인 발달장애미술가를 중심에 두고 작품 소개를 시도했다고 볼 수 있겠다. 더불어 작품에 등장하는 구체적 대상에 대한 지시가 선명하게 드러난다. 결국 '그림' 내 무엇을 대상화하고 있는가를 일차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이야기'의 빈도도 높음을 알 수 있는데 '이야기'가 서사나 텍스트라는 범용 개념보다 개인적인 스토리를 의미한다는 통념 상 작품 소개에서 '나'의 빈도 높음과 연동해서 작품 읽기가 창작자 개인의 주관적 관심사로 수렴해서 파악하고 있지 않은가 반문 가능해 보인다.

더불어 구상이 아닌, 비구상 작품 소개에 있어서 감정을 표현하는 단어인 '울림', '위로', '희망' 등의 단어가 활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비구상 작품 비평의 방식이 정서적 차원 수준에 머무르고 있지는 않은가 질문을 갖게 만든다.

제작 방식에서는 표현 행위에 집중되고 있는데 '그리다', '만들다'와 같은 행위 표현 동사가 빈번한 데에는 시각적 제작 방식을 비평 텍스트로 1:1 대응하여 기술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즉 보이는 바를 글로 쓰고 있는, 비평 이전의 기술적 서술 단계에 그치고 있지 않은가에 대해 점검해 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작품 평가에 있어서는 심리적, 시각적 어휘가 비평 어휘 수준까지 충분히 도달했는가에 대해 반성을 갖게 만든다. 미학적 비평 개념을 좀처럼 찾게 어렵고 제작 방식에 대한 형용사에 가깝지 않은가 반문하게 된다. 더불어 미적 평가인 '아름답다'와 '독특하다'는 미적특수성이라는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무릇 예술이 지닌 미적특수성에 대한 동어반복적 표현의 반복으로 볼 여지가 크다.

2) 국내 작가 소개글 분석

비평글과 마찬가지로 발달장애미술 작가 59명에 대한 작품 소개글을 AntConc 프로그램에 입력한 결과 총 3130개의 낱말이 사용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이 중에서 지시대명사, 보조 동사, 접속사, 부사, 접미사, 작가 이름과 같은 고유명사를 제외한 낱말들 2530개를 2차 텍스트 분석 데이터로 삼았다. 분석 결과 포함용어가 추가되었으며 내용/의미론적 연관 카테고리도 더욱 세분화되었다. 분석 결과는 아래 [표-10]과 같으며, 괄호 안의 숫자는 빈도수를 의미한다.

총괄용어	내용/의미론적 연관				포함용어	
작품 소개	유형	실재	구상	도시 (6)	수직적	건물(5) 맥도날드(3) 학교(3) 도서관(1)
					수평적	기차(9) 지하철(4) 자동차(3) 버스(3)
				자연(20)		하늘(2) 태양(2) 강물(1) 구름(1) 들판(1) 풀밭(1)
				사람(32)	관계(6)	친구(13) 부모님(7) 가족(5) 선생님(5) 관객(3) 아이들(2)
					신체(14)	모습(14) 눈(12) 손(5) 얼굴(4) 미소(3)
				동물(22)		고양이(5) 곤충(4) 나무늘보(1) 코끼리(1) 달팽이(1) 물고기(1)

			비 구 상	식물(7)	꽃(14) 나무(8) 풀(4)
				정물(5)	책(11) 인형(4) 벽지(4) 신문(3) 거울(2) 구두(1) 미니카세트(1) 머그컵(1) 서랍(1) 핸드폰(1) 동전지갑(1)
				텍스트(8)	단어(3) 낱말(2) 문구(1) 문장(1)
				기하학	선(12) 면(3) 원(4) 작사각형(1) 타원(1) 삼각형(1)
				색채(45)	노랑다(2) 빨강다(2) 단색(1)
가 상	매개체		신화(9) 게임(5) 영화(5) 동화(4) 애니메이션(1) 웹툰(1)		
	캐릭터(15)		로봇(8) 해리포터(4) 거인(1) 공룡(1) 괴물(1) 키티(1)		
제작 방식	매체(3)		회화(10) 드로잉(5) 조각(2) 판화(2) 도예(1)		
	재료(7)		종이(17) 물감(11) 볼펜(4) 연필(5) 스티커(5) 크레파스(3) 오일크레용(2) 테이프(2) 캔버스(2) 글루건(1)		
	표현 행위(38)		그리다(87) 만들다(37) 기록하다(7) 굿다(2) 지우다(2)		
	구성		묘사(11) 변주(11) 조형(8) 재구성(7)		
	경험의 유무	유 경험		기억(23) 경험(4)	
무 경험		상상(17) 환상(2)			
작품 평가	작가의 태도		꼼꼼하다(15) 몰두하다(15) 성실하다(4) 과감하다(3) 반듯하다(2) 우아하다(2) 다정하다(1)		
	작품의 인상	심리적	경쾌하다(1) 따뜻하다(11) 즐겁다(11) 새롭다(6) 놀랍다(6) 강렬하다(4) 신비롭다(2)		
		시각적	아름답다(10) 화려하다(8) 기발하다(8) 강렬하다(4) 과감하다(3) 정교하다(3) 조화롭다(3) 능숙하다(3) 빼곡하다(2) 세련되다(1) 가볍다(1)		
	미적 평가		독창적인(10) 특별한(8) 호형적인(6) 개성 있는(3) 생동감 있는(2)		

[표-10] 국내 작가 소개글 분석 결과

작가 소개글 분석 결과 작가별로 주요하게 다루고 있는 작품 소재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이 양적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를 통해 발달장애 시각예술 비평에서 사용되는 어휘는 주로 소재와 관련된 단어임이 드러났다. 작품 소재는 실재과 상상으로 나눌 수 있으며, 실재의 소재는 작가 주변의 일상이 주요하였다. 이를 통해 파악할 수 있는 점은 일상적 환경이 가족, 선생님, 친구 등 관계 및 지하철, 열차, 자동차 등 교통수단 그리고 도서관, 학교 등 도시 환경이라는 점이다. 그리고 정물이나 사

물보다 동식물과 자연 환경을 소재로 빈번히 다루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는 작가 개인의 관심 정도와 취향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상상의 소재에는 신화, 게임의 영향이 주요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제작 방식은 매체, 재료, 표현 행위, 구성, 경험의 유무로 분류할 수 있었는데, 표현 행위와 재료와 관련된 어휘가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매체에서는 평면이 입체보다 절대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재료에서도 평면 작업에 수반되는 재료가 다수 언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현 행위로는 '그리다', '만들다' 등 일반 동사가 주요하게 사용되었다. 그리고 재료의 어휘로는 종이, 물감이 가장 빈번히 사용되었다. 경험 유무는 기억이 상상보다 우세하나 기억과 상상 모두 정신적인 일련의 행위임을 감안해 본다면 발달장애미술 비평에 있어서 즉자적 분석보다 작가에 의해 의식·의지적으로 재구성된 예술 행위에 대한 접근을 시도하고 있음을 반증한다고 보인다.

작품 평가는 제작 방식에 비해서는 언급 빈도가 높았으며, 소재에 비해서는 낮게 나타났다. 작품 평가와 관련 어휘에서 작가의 태도를 설명하는 어휘가 자주 사용되었는데, 주로 긍정적인 의미의 어휘가 쓰여졌다. 그리고 작품의 인상에 대한 형용사의 빈도가 작품 평가면에서 가장 높았는데, 이는 글쓰기가 작품에 대해 주관적인 판단과 감정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전문적 비평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미적 평가로 분류할 수 있는 어휘는 가장 빈도가 낮았으며 한정적 어휘가 사용되었다. 독창적, 특별한, 개성, 생동감 정도의 어휘로 발달장애 예술의 비평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3. 해외 분석

1) 미국 작가 소개글 분석

다음 단계로는 국내 상황과 해외 상황 비교 분석을 위해 자료 수합 조건을 타진해서 그 중 비교군으로 미국, 일본, 호주의 작가 소개글을 취합, 분석하는 과정을 진행했다. 아래 [표-11]은 미국 Creative Growth Art Center에서 소개하는 95명의 작가 텍스트를 분석한 결과이다. Creative Growth Art Center는 미국 기관 중 가장 대표적인 장애미술 유관 기관으로서 소속 작가들에 대한 상세한 아카이빙이 특징이다.

우선 밝힐 것은 국내 작가 비평에 동원된 총괄용어와 총괄용어의 하위를 구성하는 내용/의미론적 연관을 드러내는 항목 범주를 해외 작가 소개글 분석에 동일하게 적용하였다는 점이다. 기계적인 대입으로 보일 여지가 있으나 비교 분석을 위한 기준이 필요

하기 때문에 국내 경우와 같은 조건을 설정했다.

이에 따라 분석할 때 작품 소재에서의 특징은 국내 작가 소개글과 달리 작가의 개별 작품 안에서의 도상적 특징을 읽어내는 방식에 치중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국내 포함용어에서는 도시, 사람, 동물, 정물 등의 연관어가 구체적인 단어로 열거되고 있다. 도상 안의 대상 읽기가 빈번할 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라고 판단해 본다면 미국 사례는 도상 읽기의 방식보다는 진일보한 비평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지 않은가 타진해 볼 수 있다. 물론 질적 분석이 동반되어야만 정확한 해석이 가능하겠으나 코퍼스 분석상의 차이점은 위와 같이 짚을 수 있겠다.

제작 방식에서는 평면이 입체보다 우세한 점은 국내와 공통점이나 만화, 만화책, 그래픽 등 응용미술에 적용되는 용어와 도자, 목재, 직물 등 공예와 관련한 용어가 반영되고 있다는 지점은 시각미술 지대 설정이 더 넓다고 볼 수 있겠다. 작품 평가에서 특징적인 지점은 작가 태도에 대한 서술이나 심리적인 묘사를 지양하고 있다.

미국 작가 소개글 분석에서 유의미한 도출점은 구체적인 포함용어보다 상위개념용어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국내 작가보다 많은 표본 텍스트를 분석했음에도 불구하고 비평에 사용되는 어휘가 보다 총괄용어와 내용/의미론적 연관에 근접해서 나타나고 있다.

총괄용어		내용/의미론적 연관					포함용어
작품 소재	유형(41)	실재	구상(27)	풍경(5)	도시(5)	수직적	
					자연	수평적	
				사람(32)		관계	
						신체	얼굴(20)
				동물(22)			
			식물				
			정물(15)				
			텍스트(5)				
			추상(31)	기하학		공간(5) 구조(5) 선(43)	
				색채 color(70)			
		가상	매개체				
			캐릭터(13)				
제작 방식		매체				회화(61) 카툰(5)	

(121)		세라믹(45) 코믹(5) 디자인(11) 디지털(6) 드로잉(57) 그래픽(11) 사진(6) 조각(21)
	재료(33)	붓(5) 잉크(15) 종이(23) 텍스타일(23) 수채(9) 나무(16)
	표현 행위	레이어(14) 붓질(5)
	구성(32)	내러티브(9) 반복(5) 상징(5)
	경험의 유무	유 경험 무 경험
작품 평가	작가의 태도	
	작품의 인상	심리적
		시각적
미적 평가		미적이다(9) 예술적이다(5) 창의적이다(189)

[표-11] 미국 작가 소개글 분석 결과

2) 일본 작가 소개글 분석

아래 [표-12]는 일본 야마나미 공방, 에이블 아트 재팬, 아틀리에 코너스 등 3개 기관에서 소개하는 98명의 작가 텍스트를 분석한 결과이다. 야마나미 공방은 1970년대생 창작자부터 1990년대생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작가 66명에 대한 소개글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다. 작가별 소개글에는 출생년도, 지역, 야마나미 공방에서 언제부터 활동했는지, 간단한 개인사, 작업을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어떤 계기로 작업이 발전되었는지, 무엇을 그리는지, 이것이 개인사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어떤 인성의 소유자인지 등 작가별로 일정한 톤으로 텍스트를 생산해 놓았다. 에이블 아트 재팬은 2022년 기준 25회까지 에이블 아트 어워드를 운영하여 홈페이지에 에이블 아트 어워드 심사평을 게재하고 있어 작가 소개 텍스트를 수합할 수 있었다. 아틀리에 코너스에는 13명의 작가 소개글을 통해 그림의 소재, 인성, 사람들과의 관계, 장점을 주요 내용으로 한 글을 게재하고 있다.

분석표 상으로는 제작 방식에 대한 언급 이외 비평적 접근이 두드러지지 않는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유를 생각해 보면 위에서 설명한 기관의 특성과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 소개글 생산의 목적이 창작자이자 생산자로서 작가의 역량이나 작품에 대한 비평적 분석에 방점을 찍고 있지 않고 소속 기관에서의 활동 내용과 작업 생활 태도와 관련한 내용이 주를 이루기 때문이다. 기관이 생활공동체로서 특화된 양상을 보이며 이 공동체 안에서 활동의 장기적 지속을 도모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 작가 소개글이 창작자의 자립과 작품이라는 결과물, 작가적 특수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일본 사례는 삶의 지속에 목적을 두고 있다는 질적 분석 도출이 가능하다.

코퍼스 상의 비평 개념 분석으로는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으나 예술적 삶을 영위하는 생활공동체의 면모가 부각되는 일본 사례를 통해 작가적 삶의 지속 가능성의 토양을 장기적으로 구축해 가는 방향에 대한 학습이 요청되는 바이다.

총괄용어	내용/의미론적 연관					포함용어			
작품 소재 (23)	유형	실재	구상	풍경	도시	수직적			
					자연	수평적			
					사람	관계	마음(8) 자신(14)		
					신체	얼굴(5)			
				동물(14)					
				식물					
			정물			음식(4)			
			텍스트			글씨(7)			
			추상	기하학			선(8) 원(11)		
				색채(11)					
			가상	매개체					
				캐릭터					
제작 방식 (36)	매체					입체(9)			
	재료					종이(16) 붓(4) 펜(16)			
	표현 행위					만들다(9) 그리다(82) 반복하다(8) 표현하다(4)			
	구성								
	경험의 유무	유 경험							
무 경험									
작품 평가	작가의 태도					정성스럽다(8)			

	작품의 인상	심리적	다양하다(27) 선명하다(4) 화려하다(4)
		시각적	
	미적 평가		독특하다(8)

[표-12] 일본 작가 소개글 분석 결과

3) 호주 작가 소개글 분석

영어권 작가군에서 발달장애미술 작가에 대해 비교적 상세하게 접근하고 있는 호주의 기관인 Art Project Australia에서 소개하는 77명의 작가에 대한 텍스트를 수합하였고 이에 대한 분석을 시도했다. 해당 분석표는 아래 [표-13]과 같다.

총괄용어	내용/의미론적 연관					포함용어	
작품 소재 (7)	유형 (22)	실재	구상(18)	풍경(18)	도시(3)	수직적	
					자연	수평적	
				사람(3)		관계	마음(3)
						신체(3)	눈(3)
				동물(16)			새(3)
				식물			
			정물				
			텍스트(10)				
			추상(16)	기하학	선(17) 공간(5)		
				색채(52)			
			가상(3)	매개체		꿈(3)	
캐릭터(13)							
제작 방식 (30)	매체(13)					애니메이션(4) 카툰(3) 세라믹(19) 만화(3) 드로잉(36) 일러스트레이션(3) 사진(5) 초상화(4) 프린트(7) 조각(8) 비디오(4) 그래픽(3)	
	재료					아크릴(8) 캔버스(4) 패브릭(3) 과슈(6) 잉크(9) 팔레트(5) 종이(32) 파스텔(10) 연필(12)	

	표현 행위		레이어(16)
	구성(20)		콜라주(5) 디지털(8) 내러티브(10)
	경험의 유무(3)	유 경험	
		무 경험	
작품 평가	작가의 태도		
	작품의 인상	심리적	유머러스한(3) 미스터리한(3)
		시각적	섬세하다(6) 꼼꼼하다(3) 반복하다(8) 재현하다(3) 다채롭다(5) 생생하다(4)
	미적 평가		독특하다(3)

[표-13] 호주 작가 소개글 분석 결과

작품 소재에서 구상과 추상에서 비교적 고른 비평적 시도를 취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제작 방식 상 매체 및 재료에서 다양한 접근법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한국, 미국과 제작 방식에서는 유사함을 보이나 작품 평가 어휘에서 대상 분석에 가까운 시도가 드러나고 있다.

IV. 연구 결과

발달장애미술 비평 개념 연구 방법으로 텍스트 분석 중에서도 어휘 분석을 채택하여 발달장애미술 비평 개념 연구를 실행하였다. 어휘 분석을 통한 상위 개념 설정을 위해 수집한 자료들 중 가장 분량이 많았던 국내 작가 59명의 소개글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낱말들 중 지시대명사, 보조 동사, 접속사, 부사, 접미사, 작가명 등의 고유명사를 제외한 어휘들을 추출하여, 1차 텍스트 분석을 실행하였다. 선행 연구를 통해 포함언어-내용/의미론적 연관-총괄용어로 분석틀을 설정하였으며, 귀납적 방식으로 상위 개념의 어휘를 명명하였다.

그 결과 총괄용어는 1) 작품소개, 2)표현 방식, 3) 작품 평가로 나누어 볼 수 있었으며, 연구 방법론 상 귀납적 방식으로 구성된 텍스트 분석 결과이나 총괄용어와 내용/의미론적 연관된 포함용어를 살펴보면 작품 분석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접근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1차 텍스트 분석을 통한 구조화한 분류체계를 유지하면서 보다 면밀한 분석을 위한 2차 텍스트 분석은 로렌스 앤서니(Laurence Anthony)의 AntConc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분석의 로데이터(raw data)는 국내 작가 소개글, 온라인 및 오프라인에서 수집한 국내 작가 비평글 그리고 미국, 일본, 호주 유관기관에 게재되어 있는 작가 소개글로 구분하였다. 구분한 이유는 국가 및 글의 성격에 따라 사용되는 어휘의 편차가 있을 수도 있는 결과를 예상하였기 때문이다.

연구 결과 국내 작가 소개글의 경우 작가별로 주요하게 다루고 있는 작품 소재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이 양적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를 통해 발달장애 시각 예술 비평에서 사용되는 어휘는 주로 소재와 관련된 단어임이 드러났다.

작품 소재는 실재와 상상으로 나눌 수 있으며, 실재의 소재는 작가 주변의 일상이 주요하였다. 그리고 정물이나 사물에 비해 동식물과 자연 환경을 소재로 빈번히 다루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는 작가 개인의 관심 정도와 취향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상상의 소재로 신화, 게임의 영향이 주요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제작 방식은 매체, 재료, 표현 행위, 구성, 경험의 유무로 분류할 수 있었는데, 표현 행위와 재료와 관련된 어휘가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경험 유무는 기억이 상상보다 우세하나 기억과 상상 모두 정신적인 일련의 행위임을 감안해 본다면 발달장애미술 비평에 있어서 즉자적 분석보다 작가에 의해 의식·의지적으로 재구성된 예술 행위에 대한 접근을 시도하고 있음을 반증한다고 보인다.

작품 평가는 제작 방식에 비해서는 언급 빈도가 높았으며, 소재에 비해서는 낮게 나타났다. 작품의 인상에 대한 형용사의 빈도가 작품 평가면에서 가장 높았는데, 이는 글쓴이가 작품에 대해 주관적인 판단과 감정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전문적 비평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미적 평가로 분류할 수 있는 어휘는 가장 빈도가 낮았으며 독창적, 특별한, 개성, 생동감 정도의 어휘로 발달장애 예술의 비평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국내 상황과 해외 상황 비교 분석을 위해 미국, 일본, 호주의 유관기관 홈페이지에 게재된 작가 소개글을 취합, 분석하는 과정을 진행했다. 국내·외 자료의 비교 분석을 위해 동일한 분석틀을 적용하여 어휘 분석의 결과를 도출하였다.

미국의 경우 가장 대표적인 장애미술 유관 기관인 Creative Growth Art Center에서 소개하는 95명의 작가 텍스트를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 도상 읽기의 방식보다는 진일보한 비평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지 않은가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제작 방식에서는 평면이 입체보다 우세한 점은 국내와 공통점이나 응용미술에 적용되는 용어와 도자, 목재, 직물 등 공예와 관련한 용어가 반영되고 있다는 지점은 시각예술의 지대 설정이 더 넓다고 볼 수 있겠다. 작품 평가에서 특징적인 지점은 작가 태도에 대한 서술이나 심리적인 묘사를 지양하고 있다. 미국 작가 소개글 분석에서 유의미한 점은 구체적인 포함용어보다 상위개념용어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한편 일본의 경우 야마나미 공방, 에이블 아트 재팬, 아틀리에 코너스 3개 기관에서 소개하는 98명의 작가 텍스트를 분석 자료 수집하였다. 분석 결과 제작 방식에 대한 언급 이외 비평적 접근이 두드러지지는 않다는 점이 특징이다. 그 이유는 기관의 성격에서 찾을 수 있었다. 3곳 모두 소개글 생산의 목적이 창작자이자 생산자로서 작가의 역량이나 작품에 대한 비평적 분석에 방점을 찍고 있지 않고 소속 기관에서의 활동 내용과 작업 생활 태도와 관련한 내용이 주를 이루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내 작가 소개글이 창작자의 자립과 작품이라는 결과물, 작가적 특수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일본 사례는 삶의 지속에 목적을 두고 있다는 질적 분석 도출이 가능하였다. 코퍼스 상의 비평 개념 분석으로는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으나 예술적 삶을 영위하는 생활공동체의 면모가 부각되는 일본 사례를 통해 작가적 삶의 지속 가능성의 토양을 장기적으로 구축해 가는 방향에 대한 학습이 요청되는 바이다.

호주의 경우 발달장애미술 작가에 대해 비교적 상세하게 접근하고 있는 호주의 기관 아트프로젝트에서 소개하는 77명의 작가에 대한 텍스트를 수합하였고 이에 대한 분석

을 시도했다.

작품 소재에서 구상과 추상에서 비교적 고른 비평적 시도를 취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제작 방식 상 매체 및 재료에서 다양한 접근법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한국, 미국과 제작 방식에서는 유사함을 보이나 작품 평가 어휘에서 대상 분석에 가까운 시도가 드러남을 확인하였다.

V. 제언

앞서장에서 개진한 연구 질문을 다시 소개한다.

- ◆ 발달장애미술비평, 한정된 비평 언어에 대한 진단
- ◆ 발달장애미술비평은 대상에 대한 설명이 다인가
- ◆ 비평 이전에 선행되어야 할 숙제들
- ◆ 발달장애미술비평은 미술비평의 동일 지평인가, 아닌가
- ◆ 장애미술비평임이 드러나야 하는가, 아닌가
- ◆ 발달장애미술 비평개념은 없는가

이제 이 질문들에 대한 잠정적 판단을 내려야 한다. 하나씩 짚어 본다.

◆ 발달장애미술비평, 한정된 비평 언어에 대한 진단

미술 비평은 일차적으로 작가, 작품에 대한 그만의 고유성과 특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하면서 점진적으로 이 고유성과 특성이 위치한 동시대 미술 내 혹은 미술사적 맥락에서의 타진과 분석을 수행해야 한다. 그러나 발달장애미술비평은 이 과업을 수행하고 있는가? 동시대 미술 내 미술사적 맥락에서의 비평은 실상 전무한 실정이라는 중간 판단을 내릴 수 밖에 없었다.. 발달장애미술에서 미술사적 분석이 가능한가라는 질문은 동시대 미술사에서 발달장애미술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기각되고 만다.

그렇다면 향후 과제는 선명해진다. 일차적인 작가와 작품 분석이 시행되고 있다면 미술사적 비평으로 자연스러운 이행이 요청되는 바인데, 결국 발달장애미술 영역 텍스트 생산의 풍부함이 담보되어야 가능한 과제다. 결국 미래 과제는 도출되는데 이 미래 과제를 자신의 몫으로 생각하는 텍스트 생산자가 유입되어야만 하는 실정이다. 정현, 안소연, 남웅 등 비평 활동을 활발히 하는 비평가들의 글이 분명 있으나 개별 비평가 인자에 의존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개인적 관심, 사회적 소명에서 비평을 수행하고 있으나, 지속성이 담보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비평은 흩어진 점처럼 존재하는데, 학술적 영역과 비평적 영역 양쪽에서 동반되는 시너지는 확인하기 어렵다. 이론과 실천의 의제에서 각기 출발한 발달장애미술에 대한 입장 확인과 과제 설정이 갈급하다.

물론 미래 과제의 씨앗은 보이기 시작한다. 담론적 차원에서 이 사안을 확산시키고 지속시킬 수 있는 계재가 마련되기를 제언한다. 라운드테이블, 포럼 등 담론 생산의 장이 절실히 필요하다. 나아가서 제도적 장치와 정책이 뒷받침되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미래 과제의 수렴점을 확인하고 다음 방향을 고민하면 좋겠다.

◆ 발달장애미술비평은 대상에 대한 설명이 다인가

현재적 조건에서는 코퍼스를 돌려봤을 때 아직까지는 작품이 담는 대상에 대한 설명 수준이 다수를 차지한다. 왜 그럴까?

아쉽지만 비평 텍스트 생산자가 한정적인 실정이다. 발달장애미술기관마다 생산해내는 비평 및 소개글 마다의 톤이 있고, 이런 소개글을 생산한다는 것 자체도 지속적인 관심과 작품읽기의 과정, 비평적 노력이 필요하다. 더불어 관련된 글을 쓴 비평가들은 10인 안쪽으로 소수에 불과하다. 네오룩과 같이 서문 및 비평글이 수합되는 검색 플랫폼 결과를 비취보더라도 그러하다. 연구자로 참여한 김현주만으로도 스페셜아트에서 요청하는 텍스트의 상당수를 생산하였다. 수년에 걸쳐 발달장애미술인을 지켜 본 비평적 소양이 있는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

이처럼 비평의 이름으로 수행되지만 대상에 대한 설명이 다수인 이유는 비평이 작업을 읽기도 해야 하지만, 작가와 대화를 나누고, 작업 세계의 철학을 발굴할 수 있는 과정이 요구있는데, 언어적 소통보다는 비언어적 소통을 이끌어내야 하는 물리적 시간과 상당한 애정이 수반되어야 한다. 그러나 기존의 비평 방식에 비해서는 시간과 애정, 라포 형성 등 물리적 시간이 소요될 수 밖에 없는 실정에서 비평가 내지는 관찰자가 섬세한 감각을 갖고 있지 않으면 대상에 대한 설명 이상의 비평이 생산되기 어렵다. 비언어적 특수성을 포착해내기까지는 섬세한 감각이 요청되는데 밝은방의 김효나 공동대표가 강조하는 충분한 기간과 절차가 동반되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 대상에 대한 설명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로부터의 이행이 없다는 점이 큰 문제이다. 비평은 1인의 과제 이상이다. 수합된 비평 텍스트로부터 상호 배움의 과정을 거쳐 그 다음 진단이 요청된다 바로 이 이행에 대한 고민 없이는 양적인 축적이 될 수밖에 없고 이 양적인 축적마저도 소원한 실정임이 비평의 현재다.

◆ 비평 이전에 선행되어야 할 숙제들

최선영 실장은 심층 인터뷰의 과정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미술 비평이 실상 편위(bias)를 갖고 있지 않은가 반문한다. 미술 비평은 창작에 대한 비평인데 창작에 대해 갖는 스테레오 타입의 시각을 발달장애미술 창작에 대입하는 것만으로는 시각의 한계를 애초에 품고 있을 수밖에 없다. 우리가 일상적인 행위로 보고 있는 반복 등이 발달장애

미술인에게 있어서는 창작의 행위로 볼 수 있는 지점이 있고, 창작으로 간주하지 못하던 실천과 행동을 보고, 읽고, 발굴하기 위해서는 발달장애미술인 주변에 있는 서포터를 발굴하고, 교육하면서 최소한의 예술적 행위를 관찰, 매개할 수 있는 눈이 우선 필요하다.

서포터 즉 매개자부터 예술 일반에 대해 갖는 시각 이상의 다른 눈을 가져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 양성이 우선 이루어지고 그 과정이 성숙해야 비평까지 도달하는 선로가 마련될 것이다. 특히 가장 기초적인 서포터인 부모와 가족 교육이 시급한데 발달장애인의 재능을 발견하면서도 가장 밀접한 매개자이자 관찰자의 역할에서 그 동안 정규미술 교육에서 배워 온 스테레오 타입의 미술 감식의 전형이 작동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 그조차도 미술 교육 수혜의 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창작과 비평 가치를 임의로 설정하기도 하고, 자의적으로 버리기도 한다. 결국 이는 비평 이전의 과제인데 우리는 무엇에 대해 창작이라고 불러야 하는지에 대한 모색은 개인의 노력 차원에 한정될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 발달장애미술비평은 미술비평의 동일 지평인가, 아닌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솔직히 “모르겠다”는 입장이 우선 든다. 하지만 ‘현재적’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선택적’ 수용, ‘선택적’ 접근, ‘선택적’ 선취가 절실하다. 제도적인 미술비평은 발달장애미술을 향해 구조적으로 문을 열어두어야 하고 발달장애미술은 이 문을 ‘선택적’으로 이용해야 한다. 얼마든지 “박쥐가 되자.” 무엇보다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놓아 둔 보이지 않는 허들부터 치워야 한다.

◆ 장애미술비평임이 드러나야 하는가, 아닌가

이 질문에 대해서도 발달장애미술비평은 미술비평의 동일 지평인가, 아닌가와 같은 현재적 답변으로 수렴된다. 모른다. ‘현재적’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선택적’ 수용, ‘선택적’ 접근, ‘선택적’ 선취. 필요하면 드러내고, 필요하지 않으면 드러내지 않아도 좋다. 대신 지향하는 방향은 가능세계의 모델을 상정해 볼 수 있다.

가능세계의 양상 논리는 경험적 세계와 관련해서 필연성을 주장하는 것처럼 보이는 진술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라는 문제에서 출발하여 대안을 가능세계론으로 펼친다. 가능세계를 가정하는 건 우리에게 상상력이라는 의식의 독특한 작용이 있기 때문이며 이때 상상력은 의식의 자발적 활동, 혹은 주어진 현실의 존재 타당성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능력에 기초해 있기 때문이다. 양상 논리는 다치논리(multi-valued logic)

를 갖는다. 일관된 가치만이 작동하는 세계 아닌, 다양한 가치가 현실의 모순에서는 고려해 볼 수 있다.

고차원적 회복을 위해 대안적 세계를 모색하려면 논리적 모순을 돌파해야만 한다. 단일한 미술, 단일한 비평이라는 총체성에 대해 부정하고 이 부정 자체를 조건으로 가능 세계에 대한 방식을 만들어가는 것은 발달장애미술비평신에서도 유효한 전략이 될 수 있다.

◆ 발달장애미술 비평개념은 없는가

‘발달장애미술 비평개념은 없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만들어질 수 있다”는 미래 사진을 그려본다. 그러나 이보다 앞서 결국 발달장애미술 영역에서 장기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작가군이 축적되고 이들 사이, 이들과 미술 안팎의 차이나 공통점을 발견하면서 비평풀이 확장되고 깊이도 생길 수 있다.

본 연구를 수행하며 다층의 한계에 직면하기도 했다. 우선 작가라는 존재로서의 인정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 아래 조사를 통해서 발견한 작가군이 20-30대에 국한되어 있음을 인식했다. 그렇다면 10년 전에 활동했던 작가는 어디로 사라진 걸까. 일본 사례를 언급하면서 장기적, 지속적 예술적 삶의 공동체로서 사회적 토양이 마련되지 않은 지점을 언급한 바 있다. 작가로서의 인정 이상으로 작가로서 살아가기의 건강한 토양도 부실한 시점에서 왜 작가가 사라져갔는가를 묻는 것이 얼마나 방만한 질문인지 뼈저리게 느낀다. 이런 질문은 개인의 책임으로 문제를 축소시킬 뿐이다.

창작, 생산, 전시, 유통의 구조에서 작가로 살아가기도 요원한 상황에서 수혜적으로 전시 기회나 출판 기회가 부여된다고 하더라도 한시적 계기에 그치기 쉽다. 10년 전에 활동했던 작가들에 대한 추적 조사도 병행될 필요가 있다. 비평 생산 이전에 어떤 창작의 쉼을 쌓아가고 있는가에 대해 제도적인 관심과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우리가 마주한 수 많은 발달장애미술기관들과 그곳에서 활동하는 발달장애미술인들에 대해 공적 기관에서는 소명을 가지고 네트워킹하려고 애쓰고 있으나 미술 현장 전반에서는 이들의 역할을 특수한 지점 안에 가둬놓고 있다는 반성이 제기된다. 예술가의 인권과 복지를 얘기하는 과정에서 ‘예술’에 대한 방점을 흐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시혜적 눈으로 사안을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인식 개선이 절실하다.

정리해 보겠다. 언제까지 당장의 긴박한 과업들로 인해 예술의 비평적 차원이 계속 밀

려나야만 하는 것일까. 장애예술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창작 환경 조성과 맞물려 그 창작에 대한 비평 개념 또한 일정 수위까지 성숙해져야만 한다. 창작의 영역이 확대되고 있고 그와 동시에 발달장애예술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음은 명확한데 비평 개념도 함께 무르익어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본 연구진들이 지니는 입장은 회의다. 부디 우리가 틀렸기를 바란다. 그러나 회의에 빠져 있기 보다는 뼈아픈 확인과 연구가 요청됐다. 장애예술 관련 비평의 양적·질적 수준을 파악하고, 빈도수 높게 사용되는 비평 언어를 통해 장애예술 관련 비평의 현재 흐름을 정밀하게 조사 연구하기 위해 코퍼스 분석을 시도했다 이는 장애예술의 비평 언어가 지금 어디쯤 위치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실증적인 자료까지 수집하여 최대한 많은 데이터 베이스를 확보하는 동시에, 현재적 경향을 파악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이루어졌다. 우리가 코퍼스 분석이라는 아카데믹한 방법론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자문도 해보았으나 장애미술비평, 그 창백한 지대를 거론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절차라고 간주해 주기를 당부한다. '길은 너무나 길고' 아직 그 길의 초입에서 망설이며 보고서를 마무리 짓는다.

사업명

서울문화재단 2022 장애예술인 창작활성화 지원사업

연구팀

김현주 남정현 박미연 전주연

연구 기간

2022년 5월 1일 - 2023년 2월 28일

도움주신 분들

심층인터뷰

김민정 (스페셜아트 대표)

김효나 (창작그룹 밝은방 공동대표)

이승주 (서울장애예술창작센터 매니저)

최선영 (유구리 최실장)

표지디자인

곽동경 (사진작가)

후원

서울문화재단

본 보고서의 글은 해당 저작권자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텍스트 무단 사용을 금합니다.

